

# 국내외 관광전문가, 전남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한국관광학회, 오늘까지 3일간 전남·여수 국제학술대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체계 구축 협약

‘제9차 한국관광학회 전남·여수 국제학술대회’가 여수에서 열려 국내외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전남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해 개막한 제9차 한국관광학회 전남·여수 국제학술대회는 ‘첨단 기술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과 혁신’을 주제로 여수 소노호텔에서 12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국내외 관광 분야 전문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국가 관광 연구자가 최근 관광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 140여편의 학술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관광산업 및 관광정책 전문가가 관광

현안을 논의하는 8개 특별 세션 및 관광 사례 연구,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16개 지자체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홍보 자리도 마련돼 관광 연구자 및 관광 산업 종사자의 관심을 받았다.

11일엔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사)한국관광학회 간 협약식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개막식에 이어 사키모토 타케시 일본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여수 소노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학회 전남·여수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요 내·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제관광학회장과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각각 일본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케이(K)-컬처와 관광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전남도 특별 세션에서는 남해안 관광수도 전남 도약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박창환 동서대 교수의 발제와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의

지역 주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전략과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여수시 특별 세션에서는 마이스(MICE)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여수 크루즈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통해 글로벌 전남 관광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부권 5개 시·도가 함께 3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비롯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전남의 자원과 강점을 살린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 개최해 전남 관광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관광학회는 1972년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 관광학 분야 전문 학회로 현재 약 8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다. /김재정 기자

## 무효·기권 속출...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도 ‘잡음’

###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 과반 득표 실패...재선출 방침 안평환 행자·최지현 환복·박필순 산건위원장 ‘턱걸이’ 선출

광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무효와 기권이 속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독 입후보한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 재선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를 진행했다.

이날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총 23표 중 찬성 11표, 무효 7표, 기권 5표를 받아 2차 투표가 결정됐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도 총 23표 중 찬성 11표, 무효 6표, 기권 6표를 얻어 과반(12표)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후보들간 합의가 이뤄져 출마한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교문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원외 6명인 교문위는 이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11명이 지원해 3시간 넘게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예비 뽑기로 위원을 결정했다. 교문위에 배정받지 못한 의원들의 반감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등을 담당하는 교문위는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광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 등에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의원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다.

나머지 3곳의 상임위는 대부분 턱걸이로 과반을 넘겼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는 찬성 12표, 무효 7표, 기권 4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와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도 각각 찬성 14표를 얻어 겨우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교문위원장 후보를 다시 신청받아 오는 16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운영위원장 선출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 연기됐다. /박성강 기자

## 도, 지역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이스턴푸드 등 3곳-르호앙그룹 수출협약 체결

전남도가 지역 기업의 베트남 시장 공략 지원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김, 화장품, 쌀 음료 등 도내 생산 기업과 베트남에서 과일주스 등을 수입해 유통하는 르호앙그룹 간 가교역할을 한 결과 지난 9일 수출협약을 이끌어냈다.

수출 협약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호앙 베트남 르호앙그룹 대표, 정기호 (유)이스턴푸드 대표, 황재호 (주)마린테크노 대표, 운영식 팜글 황도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도내

수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영암 삼호읍의 (유)이스턴푸드는 김을, 순천 (주)마린테크노는 먹는 콜라겐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해 유통하는 르호앙그룹 간 가교역할을 한 결과 지난 9일 수출협약을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지역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원마트 하노이점을 시작으로 하노이(2곳)와 호치민, 다낭 등 4곳에 베트남 전남 해외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 “광주 청년 일경험 상담하세요”

15-17일 시청서 ‘드림만남의 날’

광주시는 11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5-17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드림만남의 날’은 일자리 부조화(미

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사업장)와 구직청년이 만나 일경험 상담을 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스키, 해양에너지(주)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지기관등 28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드림터는 300여개 부스에서 사업장이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 일정보고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씩 5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만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광주시는 일경험에 참여할 제16기 드림청년 47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7일 오후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성강 기자

## 광주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

광주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는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 지역 치과 관련 대학(원)·병원·기업 관계

자들로 구성돼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 지역 특화전략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함께 열어 용역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시다

#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